

< 여기서 뛰어라! –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

3. 다시 현실에서

오늘날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그로 인해 번지는 감정들을 즉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다.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그림 안으로 호명된다. 그들의 눈은 핀셋과도 같다. '꼭' 집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매만져 놓는다. 작가는 요즘 사회 상황들이 뭔가 뒤죽박죽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용산참사나 4대강 사업 등을 비롯해 요즘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미약하나마 이 시대에, 오늘날 화가란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새삼 생각해 본다. 비겁하고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대해 발언 하는 일, 그것이 작가이고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란 존재는 노조 없이 홀몸으로, 단독으로 세상에 시비를 거는 자들이고 모든 불의와 속악한 현실에 대해 시각적으로 탄지를 거는 이들이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주눅들거나 길들여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남한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반성이다. 식민 지배, 전쟁, 군사정권 등이 우리의 주체적인 삶을 비주체적인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지점에서 나의 작업은 시작한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군사문화 혹은 여러 혼합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 즉 보수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등을 통해 사회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나는 반공, 순결, 가부장 문화 등이 보여주는 표피적인 이미지를 과잉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것들이 뭉쳐 만들어내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 폭력성, 가부장 문화 등을 에피소드화하여 일종의 재현극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한다. 비주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거 우리의 역사적 사건들의 이미지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입된 역사의 이면을 드러내 보이는데 관심이 있다." (조습)

'미완의 민족국가'가 배태한 정치적 현실 그리고 '현대'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한국 현대미술을 '침묵과 발언', '순수와 불온'이라는 대립항으로 양분했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는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적 · 민족적 염원을 향한 거침없는 도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대미술은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단순한 양식적 실험에 매몰했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타자'를 최초로 인식했던 것은 1980년대 민중미술이다. 이후 삶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다층적 층위의 지점을 점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미술운동'은 '민중'미술로 축소 귀결됐다. 당시 화단과 일부 평자들이 제시한 '순수/불온'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틀로 새로운 미술운동의 다층적 측면을 평면화 했다. 그간 정치적 아방가르드와 미학적 아방가르드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균형을 찾아온 새로운 미술운동은 1985년 이후 자신의 정당성을 정치적 아방가르드에서 찾게 된다. '정치와 미학의 긴장 관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1985년 이전과 '정치가 미학을 초과한' 1985년 이후를 단일한 '민중미술'로 규정하면서 1980년대를 평면화 시키고 있다. (이대범)

80년대 민중미술은 예술제도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고, 사회적 상황에 개입하면서 광범위한 맥락에서 삶의 예술을 추구했다. (민중미술은 그 시대,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시각문화였다.) 이는 다분히 개념주의 미술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개념미술은 '지금 여기'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삶과 분리된 미술의 개념을 삶 속의 실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미술이 제도 안으로 흡수, 변질된 것을 공격하기 위해 태동된 것이 개념미술이다. 개념미술가들은 '지금 여기'의 일상 그 자체의 순간을 현실로 본 반면에 민중미술가들은 식민지 지배의 과거와 국토 분단의 역사,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현재 모두가 포함된 통시적 관점의 '지금 여기'를 현실로 간주했다. 외세에 의해 시작된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미술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 비판적 리얼리즘, 혹은 민중적 리얼리즘은 당대 주류의 미술인 추상과는 다른 형식으로 미술 제도를 비판하고, 추상이 침묵했던 현실을 이야기해 소통을 추구함으로써 외국의 형식을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미술을 추구하고자 했다. 형식으로 귀결! 즉 그들은 민중이 억압받는 역사적이며 일상적인 현실의 발언, 즉 현실의 재현에 집중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리는 것! 민중미술은 이후 일정한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양식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80년대 중반 현장연대활동, 집단창작, 민중과 소통하는 예술을 추구하려 했던 일련의 움직임은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대중 일반에게 돌려놓으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시도, 이는 이후 공동체 예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로 불리는 경향들 속에서 변화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민중미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쟁취하고자 했던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행복이 실천되는 사회였다. 현대미술은 재현에서 추상, 개념으로 이행 이후 공공미술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등은 예술개념을 삶 속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의 행위로 진전시키고 있다. 집단성을 내세우며 현실로의 개입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른바 공동체 예술 혹은 커뮤니티 아트다. 커뮤니티아트란 특정 지역의 거주민 혹은 특수한 성향의 공동체의 삶을 주제로 그들의 현실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주목하는 실천을 말한다. 커뮤니티아트는 순수의 형식을 넘어 현실을 발언하고 개입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민중미술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민중미술이 사회민주화라는 대의목표를 위해 모호한 민중의 개념 속에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은폐시켰다면 커뮤니티아트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계 맺기, 이를 통한 갈등의 과정에 주목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믹스라이스(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

무늬만 커뮤니티(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며 지역민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다)

퍼포먼스 반지하 (대가 없는 노동의 행위로 마을집 수리, 건물에 페인트칠하기, 생활용품수리, 공장부지 빈터에 텃밭 가꾸기, 재활용품 수집하기 등, 마을 카페 운영)

개인의 실천이 연대를 이루는 지점! 정책적 결정에 굴복하지 않는 자생력!

오늘날 예술가는 더 이상 완성된 미학적 작품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을 구축하는 자이며, 개인 간의 관계 맺기의 중개자 혹은 그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 예술작품 역시 대상이라는 물질의 표면위를 떠나 인간의 영역 어디쯤에 물질적이거나 비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니콜라 부리요)